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4. 17.(월) 11:00 < 4.18.(화) 조간 > 배포 2023. 4. 17.(월)

1분기 무역기술장벽 1,121건 기록, 동기간 최고치

- 복잡·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(TBT)에 범부처적으로 소통하여 대응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)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이 제·개정한 기술규제가 1,121건을 기록하여,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.

*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)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·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

【 연간 1분기 기술규제 제·개정 현황(단위: 건) 】

연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
건수	1121	915	1030	961	702

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*(EAC)에서 섬유·가구·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(576건)를 제·개정하는 등,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·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(295건)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.

* 동아프리카 공동체: 우간다, 탄자니아, 르완다, 케냐, 부룬디 5개국 소속

2023년 1분기 제·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<국가별> 탄자니아(167건), 우간다(151건), 르완다(130건)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, 우리나라 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*이 제·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(21.6%)으로,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(△7.9%)하였다.

* 15대 중점국: 중국, 미국, 유럽연합(EU), 베트남, 일본, 대만, 싱가포르, 멕시코, 말레이시아, 호주, 인도, 사우디, 러시아, 아랍에미리트, 칠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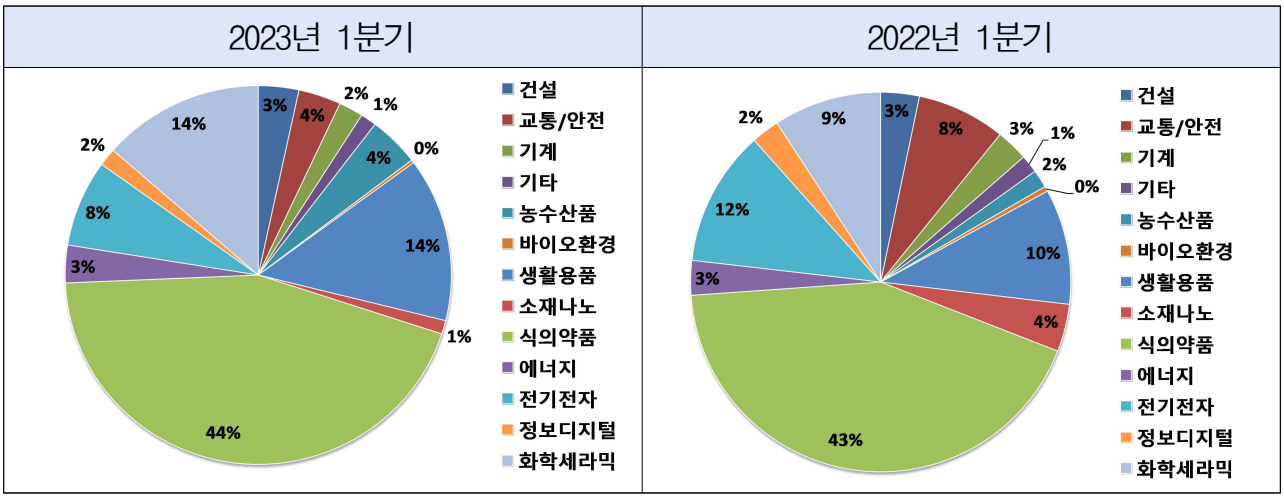
【 2023년 1분기 기술규제 제·개정 상위 10개국(단위: 건) 】

국가	탄자니아	우간다	르완다	미국*	브룬디	케냐	브라질	이스라엘	EU*	칠레*
건수	167	151	130	107	64	64	52	30	24	23

미국이 제·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(33건)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, 유럽연합(EU)는 주로 농약·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·개정(14건)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·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.

<산업별> 주로 식의약품 분야(497건, 44.3%), 생활용품 분야(157건, 14%), 화학세라믹 분야(152건, 13.5%)의 기술규제가 제·개정되었으며,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

【 산업별 기술규제 제·개정 현황 】



<목적별> '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' 목적(332건, 29.5%), '보건과 안전' 목적(208건, 18.5%), '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' 목적(123건, 10.9%)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·개정되었다.

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"나날이 복잡·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(TBT)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"고 언급하며, "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,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"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전민영 (043-870-5520)
		담당자	주무관	남궁연 (043-870-552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